



이종근 | 삼육대

1. 서론

구약성서의 고레스 신탁(Cyrus Oracle)¹⁾과 고레스 칙령(Edict of Cyrus, 스 1:1-4; 6:3-5)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에서 바벨론 포로 해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치 출애굽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고레스는 성경과 성경 밖의 문서들에서도 특이한 인물로 관심

1) 고레스 신탁(神託)은 그레스만(H. Gressmann)에 의해 최초로 고레스 찬가(Cyrus Song)라고 불리어 졌던 이사야 신탁의 일부이다. 고레스가 직접 언급된 부분(사 44:28; 45:1-7) 외에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곳(사 41:2-4,25; 46:11; 48:14) 및 변론어법(trial speech)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고레스를 시사한다(사 41:21-29; 43:9-15,22-28; 44:6-8,21-22; 45:11,20-25 등). 윌슨(Andrew Wilson)은 이사야 44장 24절-45장 13절을 고레스 신탁으로 본다. H. Gressmann, "Die literarische Analyse des Deuterocanonicalen", *ZAW* 34 (1914): 254-297; 박종수, "고레스 찬가(이사야 44:24-55:8)", 「구약논단」(1996. 12), 80; Andrew Wilson, *The Nations in Deutero-Isaiah: a Study on Composition and Structure* (Lewiston, NY: E. Mellen Press, 1986), 195.

의 대상이 되어 왔다.²⁾ 고레스 실린더(Cyrus Cylinder)는 인류의 인권 향상을 위한 하나의 귀한 문화유산이다.³⁾ 1971년 UN에 의해 회원국 모든 공식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유엔 본부에 진열되어 있으며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⁴⁾

고레스 신탁은 이사야의 고레스 찬가(사 44:24-45:13)의 일부이다.⁵⁾ 본고는 주로 아서야 45장 1절-7절의 고레스 신탁과 성서 이외의 고레스 관련 문헌인 고레스 실린더에 관한 기존의 연구 자료를 기초로⁶⁾ 현재

-
- 2) Bahman Parsa, Mahnoosh Yazdanseta, *Iran: Art & Architecture* (Teheran, 2006), 2. 고레스 신탁에 대한 다양한 논의 참고: 1). 후대의 추가설(Charles C. Torrey, James D. Smart, Jurgen van Oorschot), 2). 메시아가 아닌 왕의 직분설(Christopher R. North, Roger N. Whybray, Karl Elliger, John D. W. Watts, Antti Laato, Hugh G. M. Williamson, Brevard S. Childs), 3). 한 시적 구원자설(Claus Westermann, Gerhard von Rad, John L. McKenzie, Antoon Schoors, Rheinhard G. Kratz, Peter D. Miscall, Rainer Albertz, John N. Oswalt) 등이 있다. Lisbeth S. Fried, "Cyrus the Messiah?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Isaiah 45:1," *Harvard Theological Review* 95 no 4 (Oct, 2002), 373-393.
- 3) 인권헌장으로서의 고레스 실린더의 가치는 David Ben Gurion, Maurice Leroy, Arnold Toynbee 등에 의해 강조되었다. 이 문서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 미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프랑스 인권선언(Frenc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그리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등과 함께 인권 향상을 위한 귀한 자료이다. Amélie Kuhrt, "The Cyrus Cylinder and Achaemenid Imperial Policy", *JSOT* 25 (1983): 84-85; Cyrus R. Vance, "The Human Rights Imperative," *Foreign Policy* 63 (1986), 3-5.
- 4) 고레스 실린더는 1879년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Marduk)의 신전고탑(ziggurat)인 에테메난키(Etemenanki)의 남쪽에 위치했던 에사길라(Esagila) 신전의 기초석에서 랏삼(Hormuzd Rassam)에 의해 그 발굴을 지원했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카데미의 설형문자로 된 길이 약 23cm(약 9인치), 폭 10cm(약 3.9인치)의 점토(粘土)로 구운 원통(圓筒) 모양의 실린더이다. 이 실린더는 대영박물관과 테헤란 국립박물관의 오랜 소유권 논쟁의 이슈였다가 양측의 협의로 2010년 9월 4개월 일정으로 테헤란 국립박물관에 임대되어 2010년 9월 12일에 전시되어 많은 인파의 관람이 있었다. http://en.wikipedia.org/wiki/Cyrus_Cylinder; 래리 헤드릭, 「키루스 대제의 역전의 병법」(Xenophon's Cyrus the Great) (박영수 옮김), (서울: 대성당컴, 2009), 10; http://en.wikipedia.org/wiki/Cyrus_Cylinder.
- 5) 이사야 45장과 관련된 저작설, 연대, 및 비평 참고: Williman R. Miller, "Book of Isaiah(First)", *ABD*, III:472-490;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eabody, MA: Hendrickson Pub., 2004), 765-800; Richard M. Davidson, "Historical-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Perspective Digest* 15 No. 3 (2010), 28; Christopher Hays, "The Book of Isaiah in Contemporary Research," *Religion Compass* 5 no 10 (Oct., 2011); 노세영, 「이사야」 「현대인을 위한 최신 연구 요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563-583.
- 6) 고레스 자료들은 성서의 고레스 신탁과 역대기 문서(대하 36:22-23; 스 1:1-11)이다. 성서 외의 주요 자료는 고레스 실린더, 나보니두스 연대기(Nabonidus Chronicle), 및 나보니두스 시문

까지 학계에서 미진한 부분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⁷⁾ 최종 형태로서의 본문 중심의 양 문서를 고대근동의 배경에서 비교하고 양 문서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의 이슈를 살펴본다.

2.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배경

1) 고레스 신탁(사 45:1-7)

- 1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mēšîhō*)⁸⁾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 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 2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 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줄 알게 하리라
- 4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

기사(Verse Account of Nabonidus)들이다. 메소포타미아 문서들은 모두 친(親) 페르시아/ 반(反) 바벨론 자료들로서 나보니두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나보니두스의 패배와 고레스의 승리를 다루는 나보니두스 연대기(바벨론 연대기)의 연대 부분은 객관적이다. 기타 참고 자료로는 친 바벨론 문서들인 나보니두스 건축 비문(Building Inscriptions of Nabonidus) 및 하람석비(Harran Inscriptions) 등이 있다. 이종근,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월신 종교의 종교정책,” 『종교연구』 62 (2011, 3), 335-340; idem, “신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두스에 관한 소고,” 『성경과 고고학』 60 (한국성서고고학회, 2008, 11, 30), 18-40; Amélie Kuhrt, “Ancient Near Eastern History: The Case of Cyrus the Great of Persia”,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143 (Oxford Univ. Press, 2007), 112-113; Philip Dougherty, *Nabonidus and Belshazzar; a Study of the Closing Events of the Neo-Babylonian Empi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ondon, H.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9), 4-6; Paul-Alain Beaulieu, “King Nabonidus and the Neo-Babylonian Empire”,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J. M. Sasson et al(eds),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973-974, 977-979.

- 7) Martin Leuenberger, “Kyros-Orakel und Kyros-Zylinder Ein religionsgeschichtlicher Vergleich ihrer Gottes-Konzeptioner”, *Vetus Testamentum* 59 (2009), 244.
- 8) MT상으로는 “그의 기름 받은 자”로 읽는다(개역개정). 본고의 성서 본문은 개역 한글판 성서를 따른다.

렸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찌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
 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찌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
 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2) 고레스 실린더⁹⁾

(line 3-8) 무능한 자(나보니두스--역자 주)가 그의 나라를 다스리도
 록 얹혀졌다..... 그는 에사길라의 모조품을 만들[었다], 우르와 나머지
 거룩한 센터들에서 부적합한 매일의 제의를 압송했다. 불경스럽게 그는
 정규 헌물을 중단시켰다..... 신들 중의 왕인 마르둑(Marduk)¹⁰⁾을 경배
 하는 일을 그는 가증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날마다 그는 그(마르
 둑)의 도성에 대하여 악을 행하곤 하였다..... 그는 그[주민]들을 끊임없
 는 부역(문자적으로 “멍에”)으로 [괴롭혔으며], 그는 그들 모두를 파멸시

9) 남대국, 「소리지르는 돌들: 고고학이 밝혀주는 성경의 사실」(삼육대학교출판부, 2008), 17-19; cf. ANET, 315-316; Mordechai Cogan, “Cyrus Cylinder”, in *The Context of Scripture: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e*, William W. Hallo, & K. Lawson Younger(eds.), (Leiden: Brill, 2000), II:314-316; Robert W. Rogers, *Cuneiform Parallels to the Old Testament* (NY: Eaton & Mains/ Cincinnati: Jennings & Graham, 1912), 380-384; K. C. Hanson’s Homepage (kchanson.com/ANCDOCS/meso/cyrus.html#R); 헤드릭, 「키루스 대제의 역전의 병법」, 10.

10) 마르둑(AMAR.UTU in Sumerian)은 태양신의 송아지(calaf of the sun-god)으로 바벨론의 수호신/ 최고신이었다. 함무라비 시대로부터 제국의 수호신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이 이름을 벨(Bel)과 므로닥(Merodach)으로 부르고 수치를 당하리라고 했다(렘 50:2). 마르둑은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50개의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벨(Bel)은 아카드어로 가나안의 바알 신과 같이 마르둑의 다른 명칭으로 “주(主)”라는 의미이다(사 46:1; 51:44). ANET, 69-72; John H.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Introducing the Conceptual World of the Hebrew Bibl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90; Manfred Lurker, *The Routledge Dictionary of Gods and Goddesses, Devils and Demons* (NY: Routledge, 1987), 32.

켰다.

(line 9-19) 그들의 불평 때문에 신들의 주(主)는 심히 분노하여, 그들의 지역[으로부터 떠났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 살고 있던 (다른) 신들도 그가 (저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온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저들의 거처를 떠났다. (그러나) 마르둑은...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 있는 성소들이 황폐되어 있고 수메르(Sumer)와 아카드(Akkad)의 주민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는 기꺼이 지원할 의로운 통치자를 찾고자 온 나라들을 조사하고 면밀히 살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안산(Anshan)의 왕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전 세계의 통치자로 선언하였다. 그는 구티움(Gutium)과 모든 움만-만다(Umman-manda, 메데)가 그(고레스)의 발 앞에 굴복하여 절하게 하였다. 그(고레스)는 그(마르둑)가 정복하게 한, 머리가 검은 사람들을 언제나 법과 정의로 돌보았다. 위대한 주(lord)요 그의 백성/ 경배자들의 보호자인 마르둑은 그(고레스)의 선한 행위들과 그의 정직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그의 도성 바벨론을 향하여 진군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바벨론으로 향하여 길을 출발하게 하였고, 마치 참된 친구처럼 그의 곁에서 동행했다. 그의 거대한 군대는 그 수가 강의 물처럼 알 수 없었는데, 완전무장하여 그의 곁에서 진군했다. 싸움이나 전투 없이 그는 그로 하여금 그의 성읍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는 바벨론에 아무런 고난을 끼치지 않게 하였다. 그는 그(마르둑)를 경배하지 아니한 나보니두스를 그(고레스)의 손에 넘겨주었다.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 수메르와 아카드의 모든 나라, 방백들과 총독들이 그에게 절하고 그의 발에 입 맞추었다. 그들은 그의 왕권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얼굴이 빛났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를 환영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했다.

(line 20-22a)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바벨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이자 안산

의 왕이신 캄비세스(Cambyses)의 아들이며, 위대한 왕이시오 안산의 왕이신 고레스(Cyrus)의 손자이며, 위대한 왕이시오 안산의 왕이신 테이스페스(Teispes)의 후손이며, 영원한 왕권의 후손이다. 벨(Bel)과 느보(Nebo)¹¹⁾는 내가 통치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내가 왕으로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

(line 22b-28) 내가 평화롭게 바벨론에 들어가서, 기쁨과 행복 속에 왕궁에서 나의 통치를 시작했을 때, 위대하신 주 마르둑은 바벨론의 관대한 주민들을 [...] 하였으며, 나는 날마다 그를 경배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의 많은 군대가 평화롭게 바벨론을 배회하였고, 나는 아무도 [수메르]와 아카드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바벨론 도시와 모든 성소들의 복리를 추구했다. 바벨론의 주민들에 대하여, 그(나보니두스 - 역자 주)가 신의 뜻에 어긋나게 어울리지 않게 부과한 부역(corvee)에 대해 나는 그들의 피곤을 경감시켰고, 노역(奴役)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다. 위대하신 주 마르둑이 나의 [선한] 행위들을 기뻐하셨다. 그가 은혜로운 축복을 그를 예배하는 왕 나 고레스와 나의 자손인 캄비세스, 그리고 모든 나의 군대 위에 보내셨고, 그 앞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활동한다.

(line 28-36) 그의 존귀한 [말씀]으로, 세계에 걸쳐, 윗바다(the Upper Sea, 지중해-역자 주)에서 아랫바다(the Lower Sea, 페르시아만-역자 주)에까지 보좌에 앉은 모든 왕들,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자들, 천막들에 거하는 서쪽 나라의 모든 왕들, 그들 모두가 내 앞에 무거운 조공을 가져왔고 바벨론에서 나의 발에 입 맞추었다. [니느웨], 아슈르와 수사, 아가데, 에쉬눈나, 잠밤(Zamban), 메투르누(Meturnu), 데

11) 느보(Nebo)는 “고지자(告知者)”란 뜻의 마르둑의 아들로서 학문과 주술의 신이다(사 46:1). Gwendolyn Leick, *Historical Dictionary of Mesopotamia*, 2nd ed. (Lanham, MD: Scarecrow Press, Inc., 2010), 123; Lurker, *The Routledge Dictionary of Gods and Goddesses, Devils and Demons*, 32.

르(Der), 구티움까지, 나는 오랫동안 그들의 성소가 버려졌던 티그리스 강 저편의 성소들로 (신상[神像])을 돌려보냈고, 나는 그들이 영원한 처소에 거하도록 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거민들을 모았고 그들의 거처를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더 나아가 위대한 주 마르둑의 명령으로 나는 나보니두스가 신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바벨론으로 옮겨온 수메르와 아카드의 신들을 그들의 거주지에 기뻐하는 거처에 모셨다. 내가 그들의 거룩한 센터들에 모신 모든 신들이 벨(마르둑의 다른 이름)과 나부/느보 신들에게 간구하여 나의 날이 장구하도록 빌고 나의 복리를 위해 증보하기를 바라노라. 그들이 나의 주 마르둑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경외하는 왕 고레스와 그의 아들 캄비세스를 위하여 [...] 하기를”바라노라. 내가 모든 나라들을 평안한 거처에 거하도록 했다.

(lines 37-44) [] 나는 현물들을 [x]에게 증대시켰다, 이전의 거위, 두 마리 오리 그리고 비둘기 보다 [x] 거위, 두 마리 거위, 그리고 열 마리의 비둘기를 증대시켰다. 나는 {바벨론의 위대한 성벽인 두르-임구르-엔릴(Dur-Imgur-Enlil)의 [건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전임 왕이 세웠지만 완성하지 못한 수로 독의 벽돌 [], 밖으로 어떤 이전의 왕들도 만들지 못했다. 나는 새로 세웠다, [], 동으로 입혔다. 경계들과 주축들, 그들의 [문들]. 나보다 앞서 있었던 아슈르바니팔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을 [나는 보]았다.¹²⁾

12) 고레스의 혈통과 정통성을 신바빌로니아 제국 이전의 신아시리아 제국과 연결시킨다. Richard Fowler & Olivier Hekster, *Imaginary Kings: Royal Images in the Ancient Near East, Greece and Rome*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2005), 33.

3. 문학적 기교

1) 저작성

고레스 신탁은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의 이사야의 저작으로¹³⁾ 남방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가 운명된 것을 직감한 저자가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劉秀)의 처절한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레스의 출생(c. 590 BC) 150여 년 전에 신탁으로 포로해방과 유대 민족의 본국 귀환을 노래한다.¹⁴⁾ 고레스에 대한 여호와/야훼의 절대 주권적 소명과 섭리, 승리와 구원을 노래한다.¹⁵⁾ 고레스 신탁은 이스라엘의 예언 전

13) 이사야의 저작성은 8세기의 이사야가 전반부(1-39장)와 후반부(40-66장) 전체를 다 기록했다는 전통적 견해가 있다. 비평적인 견해로 제1이사야(Proto-Isaiah)는 기원전 8세기의 예루살렘의 이사야가 1-39장을 기록했고(J. C. Doderlein, 1775; J. G. Eichhorn, 1780-1783), 제2이사야(Deutero-Isaiah, Bernhard Duhm)는 포로기 바벨론의 이사야로 기원전 547년 메대와 연합군으로 고레스가 리디아를 점령했지만, 539년 바벨론 함락에 대한 이야기기 없어 대략 기원전 540년경에 활동하며 40-55장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제3이사야(Trito-Isaiah)은 포로기 이후의 이사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언급이 없어 에스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Duhm), 또는 538-515년 직후까지 활동했던 제2이사야의 제자로도 56-66장을 기록했다는 것이다(Karl. Elliger), 이사야 45장과 관련된 기타 저작성 논의 참고: Richard J. Clifford, "Book of Isaiah(Second)," *ABD*, III:490-501;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eabody, MA: Hendrickson Pub., 2004), 765-800; Richard M. Davidson, "Historical-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Perspective Digest* 15 No. 3 (2010), 28; 노세영, "이사야," 「현대인을 위한 최신 연구 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563-583.

14) 유대인 포로해방령이 고레스에 의해 기원전 537년에 반포되고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사 2; 6:3-5). 기원전 520년에서 515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후계자 다리오 1세(Darius, 550-486 BC)에 의해 페르시아 4대 수도 중의 하나인 악메다(Achmetha/엑타바나) 왕실문서보관소에서 이 실린더에 기초된 성전기명을 돌려보낼 것과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는 비문을 찾아 스룹바벨(Zerubbabel) 성전이 완성된다(사 6:1-15). Victor H. Matthews & Don C. Benjamin, *Old Testament Parallels: Laws and Stories from the Ancient Near East* (NY/ Mahwah, NJ: Paulist Press, 1991), 147; Tamara C. Eskenazi, "Zerubbael,"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Katharine D. Sakenfeld et al(ed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6), 5:980-981.

15) 히브리어의 고레스 신탁은 전형적인 히브리 신탁문서로 4개의 절(strophes)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절: 사 45:1(왕위 선택과 여호와와의 섭리); 둘째절: 사 45:2-3(정복 섭리); 셋째절: 사 45:4-6a(여호와와의 소명 목적); 넷째절: 사 45:6b-7(여호와와의 절대주권). Andrew Wilson, *The Nations in Deutero-Isaiah*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1986)207-209.

승에서 70년의 포로와 해방이라는 모티브의 기초가 되었다.¹⁶⁾

고레스 실린더는 기원전 539년 10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 1년 이내에 그의 입성을 환영했던 마르дук 사제 그룹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¹⁷⁾ 내용의 군사적인 면이나 내용의 주류가 고대 문서들과 부합되는 면에서 역사성을 지닌다. 이 문서는 고레스를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바벨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 사방의 왕”¹⁸⁾으로 묘사했다. 바벨론의 구원자와 회복자로서 고레스의 족보를 열거하고 마르дук에 의해 선택되어 신바빌로니아/신바벨론 제국에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고, 바벨론인들에 의해 새 지도자로 환영받으며 무혈입성을 보여 준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버려진 신전들이 회복되고 포로된 백성들이 그들의 신상들과 제의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며, 백성들의 시혜자로 그가 칭송된다.¹⁹⁾

16) 렘 25:11-12; 29:10-13; 단 9:2; 속 1:12; 7:5. 70년 모티브는 고대근동에서 신들이 어떤 도시에 대한 분노, 버림(abandonment), 처벌(도시의 황폐)과 회복의 기간이다. M. W. Chavalas and K. L. Younger, Jr(eds.), *Mesopotamia and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366; H. W. F. Saggs, *The Might That was Assyria* (London: Sidgwick & Jackson, 1984), 105.

17) Lester L. Grabbe, “Cyrus,”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Katharine Doob Sakenfeld et al(ed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1:820.

18) 고레스가 취한 이러한 호칭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위선전의 일환이었다. “바벨론의 왕(*šar Babilii*)”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요람인 바벨론을 우주의 중심으로,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šar šu-me-ri u Ak-ka-di*)”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신전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의무를, “사방의 왕(*šar kib-ra-a-ti ir-bit-tim*)”은 우주적 통치권을 각각 강조한 것들이다. 나보니두스도 이런 유사한 “위대한 왕, 강한 왕, 우주의 왕, 바벨론의 왕, 사방의 왕 나보니두스”라는 호칭을 십파르의 나보니두스 실린더(Nabonidus Cylinder from Sippar)에 기록했다. Paul-Alain Beaulieu, “World Hegemony, 900–300 BCE”, *Blackwell Companion to the Ancient Near East*, Daniel C. Snell(ed.),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988), 56; idem, *The Reign of Nabonidus, King of Babylon 556–539 B.C.* (1989).

19) 고레스 실린더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보니두스 악행과 마르дук의 역할(Lines 1–19); 둘째, 왕위 프로토콜과 족보(Lines 20–22a)(주어를 1인칭으로 사용함); 셋째, 고레스의 평정 활동(Lines 22b–34); 넷째, 고레스의 기도(Lines 34–36); 다섯째, 헌물과 바벨론 건축(Lines 37–44). Kuhrt, “Cyrus Cylinder and Achaemenid Imperial Policy”, 87. P.-R. Berger가 Yale collection(BIN II, 32)로 Line 36–45를 추가된 번역본을 새로 출판했다. “Der Kyroszylinder mit dem Zusatzfragment BIN II, 32 und die akkadischen Personennamen im Danielbuch,” ZA 64 (1975).

2) 양식과 문서 성격

고레스 실린더는 메소포타미아의 건축 문서(Mesopotamian royal building texts) 양식을 따른 신전기초석 비문(foundation deposit inscription)이다. 고레스 실린더는 바벨론 도성과 주민들에게 악을 행하고, 마르둑에게 불경스러웠던 나보니두스와 달리 마르둑에 의해 왕으로 선택된 고레스가 신아시리아/신앗시리아 제국과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합법적인 후계자임을 주장한다. 이것은 당대의 엘리트 계급과 백성들에게 그의 정의로운 통치로 인한 왕권의 정당성을 선포하고 그들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왕위선전(royal propaganda) 내지 합리화 문서(legitimation text)이다.²⁰⁾ 이 문서는 고대근동의 왕위선전 문서를 따라 바벨론 정복의 이유와 그 이후의 조치들을 다룬다. 특히 신전기초석 비문들은 고레스 실린더처럼 대부분 전임자들의 불경한 행위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백성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신들에 의해 버림받은 것으로 채색하는 면에서 특이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신들에 의해 선택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복리를 가져온 여러 조치를 했다고 강조한다. 이런 모습은 고레스 실린더와 동시대 자료인 나보니두스 시문기사(Verse Account of Nabonidus)에서도 전임자인 나보니두스가 마르둑 제사장들의 원수

20) Kuhrt, "Cyrus Cylinder and Achaemenid Imperial Policy", 83-97; Piotr Michalowski, "Archaemenid Period Historical Texts Concerning Mesopotamia: The Cyrus Cylinder," in *The Ancient Near East: Historical Sources in Translation* (Malden, MA; Oxford: Blackwell Pub., 2006), 428; J. Harmatta, "The Literary Pattern of the Babylonian Edict of Cyrus," *Acta Antiqu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19 (1971), 217-231. 왕위선전에 관한 논의 참고: 이종근, "생명존중을 위한 메소포타미아 법들의 정의," 「구약논단」 15 (2003, 10, 15), 282-284; J. Høgnhaven, "Prophecy and Propaganda: Aspects of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ing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JSTOT* 1 (1989), 125-141; S. G. Brandon, "Propaganda Factor in some Ancient Near Eastern Cosmogonies", in *Promise and Fulfillment; Essays Presented to S. H. Hooke in Celebration of his 90th Birthday*, F. Bruce(ed.), (Edinburgh: T & T Clark, 1963), 20-35; Samuel N. Kramer, *The Sumerians: Their History, Culture, and Character*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7), 160; E. Nardoni, *Rise Up, O Judge: a Study of Justice in the Biblical World*, trans. S. Ch. Martin (Peabody, MA: Hendrickson, 2004), 1-20; M. Liverani, "The Deeds of Ancient Mesopotamian Kings", eds. J. M. Sasson et al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2354-2359.

로 맹비난되는 반면, 고레스는 바벨론의 해방자로 칭송되는 것과는 유사하다.²¹⁾

고레스 실린더의 내용은 이미 3천년기(millennium)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승된 미샤룸(*misharum/mišarum*) 칙령의 개혁 조치들과 유사하다. 미샤룸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왕들이 왕위 등극 시나 초기 또는 재임 중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된 사회정의 조치들을 말하는데 수메르의 우루-이닝기나(Uru-Inimgina/Urukagina, c. 2351-2342 BC) 왕의 최초 개혁법에서부터 이미 왕은 관료개혁, 세금개혁 및 노예해방을 실시했다. 이런 조치들에 후대의 우르-남무 법(Laws of Ur-Nammu, c. 2100 BC), 리피트-이쉬타르 법(Laws of Lipit-Ishtar, c. 1930 BC), 아카드어의 에쉬누나법(Laws of Eshnunna, c. 1800 BC)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법들의 집대성인 함무라비 법(Laws of Hammurabi, c. 1750 BC)과 다른 칙령들에서 미샤룸의 국리민복의 다른 방책들인 토지회복, 파괴된 도시나 신전의 재건, 어떤 도시의 세금이나 부역면제(*kidinnutu*),²²⁾ 및 화폐개혁 등의 조치들이 시행되었다.²³⁾ 고레스 실린더는 이들 중 노예해방, 신상과 포로들의 본국 귀환, 도시나 신전의 재건, 세금과 부역면제 조치들을 취했다고 했다.²⁴⁾

-
- 21) ANET, 312-313; 이종근,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월신 종교의 종교정책」 335-336; Lester L. Grabbe, *A History of the Jews and Judaism in the Second Temple Period: Yehud, the Persian Province of Judah*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4), 267.
- 22) Leo Oppenheim,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Univ. of Chicago, 1977), 103; Georges Roux, *Ancient Iraq*, new ed. (NY: Penguin Books, 1986), 163-164.
- 23)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11), 25-33, 201-212. 수메르어의 자유와 해방 선언인 NIG. SI. SA./ AMA. RA. GI₄를 포함하고, 아카드어의 안두라룸(*Andurarum*), 누지(Nuzi)의 슈두투(*šudutu*) 등의 조치들과 유사하다. 고대 바벨론의 암미사두카(*Ammisaduqa*, c. 1646-1626 BC) 왕의 칙령은 미샤룸 실행의 잘 보존된 한 사례이다.
- 24) 고레스 실린더와 동시대의 아람어역 고레스 칙령에는 관청의 공적 용도로 칙령이 선포되었고, 성전의 구조와 규격을 서술하며 성전 건축비는 궁중의 금고에서 지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스 6:3-5). 피정복 국가들의 성전/신전 재건은 페르시아 왕들의 종교정책의 관대한 면모를 보여준다. 김영진, 「이스라엘의 역사」(서울: 이레서원, 2006), 403-404.

고레스는 자신이 바벨론의 성벽과 수로 건축을 지원하면서,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 신전인 에사길라(Esagila) 신전의 두루-임구르-엔릴(Dur-Imgur-Enlil) 성벽의 기초석에 묻어 두었던 신아시리아제국의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 c. 668-627 BC)의 건축문서 양식을 따랐다고 했다.²⁵⁾ 아슈르바니팔의 건축문서들은 그가 조부 산헤립이 파괴한 바벨론과 에사길라 신전을 재건하고 아슈르로 옮겨졌던 마르둑 신상을 바벨론으로 복귀시키고 그 제의를 회복했다고 했다.²⁶⁾

고레스 실린더의 성격에 대해 1960년대 이후 이란의 팔레비(Mohammad Reza Pahlavi) 왕을 위시한 일각에서는 고레스 실린더가 인류의 최초의 인권헌장(Human Rights Charter)이라 주장했지만,²⁷⁾ 대영박물관을 필두로 일부 학계는 그런 주장을 시대역행적이고 극단적인 오해라고 반박했다.²⁸⁾ 그것은 근본적으로 왕위선전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레스 실린더가 인류 “최초”의 인권헌장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²⁹⁾ 고레스 실린더 보다 무려 1800여 년 전

25) 나보니두스 시문기사에서 고레스는 자신이 직접 두루-임구르-엔릴 성벽 공사에 곡괭이, 삽 그리고 흙주머니를 들고 공사에 참여했다고 했다. *ANET*, 315.

26) Harmatta, "The Literary Pattern of the Babylonian Edict of Cyrus," 217-231. 에살하돈(Esarhaddon, 681-669 BC)의 건축문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랜스버거(Landsberger)는 에살하돈이 바벨론을 재건하거나 마르둑 제의를 회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B. Landsberger, *Brief des Bischofs von Esagila on König Asarhaddon* (1965), 18ff quoted in Kuhrt, "Cyrus Cylinder and Achaemenid Imperial Policy," 96-97.

27) United Nations Note to Correspondents no. 3699, 13 October 1971; Mohammed Reza Pahlavi, *The White Revolution of Iran* (Imperial Pahlavi Library, 1967), 9.

28) Elton L. Daniel, *The History of Iran*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0), 39; T. C. Mitchell, *Biblical Archaeology: Documents from the British Museu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83.

29) Amélie Kuhrt, "Cyrus the Great of Persia: Images and Realities", *Representations of Political Power: Case Histories from Times of Change and Dissolving Order in the Ancient Near East*, Marlies Heinz and Marian H. Feldman(ed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7), 174-175; T. C. Mitchell, *Biblical Archaeology: Documents from the British Museu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83; idem, *The Bible in the British Museum: Interpreting the Evidence* (NY/ Mahwah, NJ: Paulist Press, 2004), 92; Elton L. Daniel, *The History of Iran*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0), 39; http://en.wikipedia.org/wiki/Cyrus_Cylinder.

부터 시작되는 수메르 도시국가들의 미샤룸 조치들에서도 고레스가 주장하는 노예해방과 자유 등 인권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실시했다고 했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고레스 실린더는 분명히 인류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의 인권헌장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엔(UN)도 현재 그것을 하나의 고대 인권헌장이라는 견해를 견지한다.

3) 상호 관련성

양 문서의 상호 관련성은 각자의 전승을 따라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고레스 신탁은 기원전 8세기의 예루살렘의 이사야가 기록했고, 고레스 실린더는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론의 마르둑 제사장 그룹에 의해 편찬되었다. 고레스 신탁이 고레스 실린더 편집에 영향을 미쳤다가나(Sparks, Muilenburg, Josephus), 고레스 신탁이 고레스 실린더의 것을 빌렸다(North, Knight), 또는 고레스 실린더가 고레스 신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Rappaport), 또는 양 문서가 메소포타미아 스타일(Cogan)을 따랐다는 등의 견해들이 있다.³¹⁾

양 문서는 유일신(monothelism)과 다신교(polytheism)의 차이가 있지만, 주요 내용의 전개는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양 문서는 상호 의존적이

30)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25-33.

31) Kenton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6), 397-398; James Muilenburg & Henry Sloane Coffi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The Interpreter's Bible*, George A. Buttrick et al(ed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5:523; Uriel Rappaport, "Cyrus", *Encyclopaedia Judaica*, Fred Skolnik et al(eds.), 2nd ed. (Detroit: Macmillan Reference, 2007), 5:351; Christopher R. North, *The Second Isaiah*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4), 149; George A. F. Knight, *Deutero-Isaiah* (NY: Abingdon Press, 1965), 131; Cogan, "Cyrus Cylinder(2, 124)," 314. 기타 메소포타미아와 성서 자료의 해석 문제 참고: Morgens T. Larsen, "The 'Babel/ Bible' Controversy and Its Aftermath,"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Jack M. Sasson et al(eds.),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1:95-106; Mark W. Chavalas, "Assyriology and Biblical Studies: A Century and a Half of Tension," in Mark W. Chavalas & K. Lawson Younger, *Mesopotamia and the Bible: Comparative Exploratio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21-67;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29-40.

라기보다는 고대근동의 공동 전승(common Semitic tradition)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³²⁾ 고레스 신탁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기별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는데 애굽왕 바로, 앗시리아, 또는 느브갓네살 등 이방인이나 국가를 사용하신다는 전승이 있어 왔고(출 4:21; 사 10:5; 렘 25:9; 27:6; 43:10), 고레스 실린더도 이미 고레스보다 이천년기 이전의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룸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건축문서의 양식과 내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대 사가 요세푸스(Titus Flavius Josephus, c. 37–100 AD)는 고레스가 자신에 관한 이사야의 고레스 신탁을 읽었다고 했다.³³⁾ 역대기 사가는 이런 면에서 고레스가 자신의 삶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신탁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 그분의 뜻인 유대인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결심한 것으로 묘사했다(대하 36:22–23; 스 1:1–11).

고레스 실린더는 유대인 포로해방과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고레스 칙령의 기초가 되었다(스 1:1–3).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

32) Brevard S. Childs, *Isaiah: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354; Mullenburg & Coffi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523.

33) 고레스가 자신에 관한 고레스 신탁을 알게 된 것은 다니엘에 의해서이다. 기원전 605년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브갓네살에 의해 제1차 포로로 바벨론에 유배되고(단 1:1–3), 메대와 바사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거의 70여 성상의 기다림 이후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 10월 바벨론을 정복하고 입성한 다음해인 538년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인해 사자 굴에 던져졌다가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이것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특이한 경험으로 고레스에게 다니엘에 대한 호감을 주게 만들었다. 다니엘은 고레스가 임명한 바벨론의 봉신왕(vassal king) 다리오(고브리야스)의 총리로써(단 6:1–2) 고레스를 알현할 수 있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된 고레스 신탁을 설명했고 고레스는 깊은 감명을 받아 유대인 해방과 귀환을 결심하게 되었다. Flavius Josephus, *The Antiquities of the Jews in The Works of Josephus*, trans. William Whiston, new updated ed. (Peabody: Hendrickson, 1987), 11,2; Ellen G. White, *Prophets and Kings* (Nampa, Idaho; Oshawa, Ontario, Canad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2010), 557; J. Ridderbos, *Isaiah: Bible Student's Commentary*,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85), 407; cf. William H. Shea, "Nabonidus Chronicle: New Readings and the Identity of Darius the Mede,"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7/1 (Spring 1996): 1–20; Anson F. Rainey & R. Steven Notley, *Sacred Bridge: Carta's Atlas of the Biblical World, an Overview of the Ancient Levant* (Jerusalem: Carta, Jerusalem, 2006), 280.

벨론으로 유배된 지 50여년 뒤인 기원전 537년에 제1차 해방령으로 약 5만 여명의 유대인들이 스투바벨의 지휘 하에 본국으로 귀환했다(스 2:64-67).³⁴⁾

4) 고레스 신원

고레스의 초기 생애는 고대 세계의 영웅담의 전설에 속한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동부 소국 안산의 왕 캄비세스 1세(Cambyses I)와 메대의 왕 아스티아게스(Astyages, c. 585-550 BC)의 딸 만다네(Mandane)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레스 실린더에서 고레스는 자신이 위대한 왕이자 안산의 왕인 캄비세스(Cambyses)의 아들, “위대한 왕이시오 안산의 왕” 들인 고레스 1세(Cyrus I)의 손자이며 테이스페스의 증손으로 영원한 왕권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레스 보다 1세기 이후의 그리스 사가 헤로도토스(Herodotus, c. 484-425 BC)에 의하면 만다네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아스티아게스의 수도(首都)를 채울 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범람하는 꿈을 꾸 뒤, 이를 경계하여 메대의 귀족에게 시집보내지 않고 안산의 봉신(封臣)인 캄비세스에게 결혼시켰다고 전해진다.³⁵⁾

아스티아게스는 다른 꿈으로 외손자에 의한 왕위 전복을 경고받고, 만다네를 메대로 불러들여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자 명령했다. 명을 받은 심복 하르파구스(Harpagus)는 아이 고레스를 죽이지 않고 목자에게 그를 야생 짐승들이 있는 언덕에 버리도록 했지만, 그 목자도 고레스를 죽

34) 제2차 귀환은 기원전 457년에 제2차 해방령으로 에스라의 지도하에 있었다(스 7:6-9). 제3차 해방령으로 3차 그룹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귀환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국가를 건설했다(느 2:1-10). 정중호,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88; James D. Purvis, “Exile and Return,” in *Ancient Israel: from Abraham to the Roman destruction of the Temple*, Hershel Shanks(ed.),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2011), 167.

35) Cyrus Cylinder (line 20-22a); Herodotus *Hist.* 1,107-122; Amélie Kuhrt, *The Ancient Near East: c. 3000-330 BC* (London/ NY: Routledge, 1995), 661, 크테시아스(Ctesias, c. 5세기 BC)는 고레스는 천민 출신이며 왕의 술관원으로 입지를 세워, 메대를 점령했다고 했다. Kuhrt, “Cyrus Cylinder and Achaemenid Imperial Policy”, 108; *Columbia Electronic Encyclopedia*, 6th edition (Nov. 1, 2011), 1.

이는 대신 자신의 부인이 사산(死産)한 아이 대신에 고레스를 10살까지 길렀다. 10년 후 자신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아스티아게스는 하르파구스에게 대노하여 그 자신의 아들의 목을 잘라 만찬 식사를 하도록 처벌했다.³⁶⁾

복수에 불탄 하르파구스는 고레스가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의 메대를 대항에 일어났을 때, 메대의 주력부대를 이끌고 고레스를 대항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대를 이끌고 고레스에게 투항하여 메대 제국의 패망을 가져왔다고 전해진다.³⁷⁾ 고레스는 폐위된 아스티아게스를 선대하여, 엑바타나의 북쪽의 휘르카니아(Hyrcania)를 다스리게 하였고, 메대인들을 등용하는 등 후덕(厚德)한 인간성을 보여주었다.

이 하르파구스가 고레스의 매우 유능한 장군으로 리디아의 크뢰수스(Croesus)를 대항하는 전투에서도 리디아의 기마부대에 맞서 낙타 등의 혹이 하나인 단봉(單峰) 낙타(dromedaries)을 앞세워 그 냄새로 말들이 흩어지게 하는 전술로 승전의 기세를 얻었고, 소아시아, 이오니아, 페니키아 등을 정복하여 고레스에 넘긴 탁월한 전략가로 전해진다.

고레스는 마침내는 캄비세스 I세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 고레스 출생과 소년 및 이후의 생애에 관한 많은 전설들이 있어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과 칭송을 자극하였고,³⁸⁾ 마침내 헬라인 소크라테스(Socrates)의 제자이자 유명한 장군인 크세노폰(Xenophon,

36) Herodotus *Hist.*, I,119.

37) 나보니두스 연대기 제6년(c. 550 BC)에 아스티아게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고레스를 향해 진군했다. 아스티아게스 군대가 그에 대항하여 반역했고 그를 사로잡아 고레스에게 넘겼다. 고레스는 메대로 진격하여 수도 엑타바나를 함락시켰다(ANET, 305). 반면 크세노폰은 고레스의 출생은 헤로도토스와 같지만, 메대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메대 군대가 그에게로 넘어왔다고 했다. 고레스를 많이 미화해서, 심지어 이집트까지 정복했고, 심지어 그가 죽을 때에도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신들에게 기도하고 축복 및 지혜의 말을 했다고 했다. Xenophon *Cyropaedia* VIII,C.7,6-28.

38) Jacob Abbott, *Cyrus the Great - Makers of History* (NY: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04); Samuel W. Crompton, *Cyrus the Great: Ancient World Leader* (NY: Infobase Pub., 2008); Harold Lamb, *Cyrus the Great* (NY: Doubleday & Co, Inc., 1960).

c. 430–354 BC)은 고레스에 관한 일부 가공적 자서전인 키로패디아 (*Cyropaedia*, The Education of Cyrus)라는 작품으로 페르시아 제국 건설을 경축하며, 고레스의 이상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³⁹⁾ 그러나 고레스에 관한 많은 전설 중 군사적인 것들은 역사적인 것으로 보인다.⁴⁰⁾

3.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비교

45: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서론의 양식은 고대근동의 메신저 양식(messenger formula)로서 여기서는 “왕위 임명(royal commissioning)”이며, “구원 신탁(salvation oracle)”으로 신탁의 권위에 주의를 환기시킨다.⁴¹⁾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고레스에게 전해지는 확증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고레스 실린더에서도 “고레스께서..... 이렇듯 말씀하시되”로 선언된다.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탁 서론으로 공용문구(common phraseology)이다.⁴²⁾ 이것은 베히스툼 비문(Behistun Inscription)의 다리오 왕의 아랍어 역본과도 같다. 고레스 실린더에도 유사한 표현으로 마르дук이 고레스에게 통치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⁴³⁾

39) 크세노폰에 의해 칭송된 고레스의 관용의 모범적 자질은 후대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와 로마제국의 군주들, 이후의 토마스 제퍼슨 등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Xenophon, *Xenophon's Cyrus the Great: the Arts of Leadership and War*, Larry Hedrick(ed.), (NY: Truman Talley Books/ St. Martin's Press, 2006); P. A. Stadter, “The Ruler’s Virtue and the Empire: Cyrus the Great and Tiberius,” *Ancient World* 31/2 (2000), 163–172 등.

40) T. Guyler Young, Jr., “Cyrus”, *ABD*, I:1231–1232; D. J. A. Clines, “Cyrus”, *ISBE*, I:846.

41) 구원 신탁은 버그리히(Begrich)에 의해 명명되었다. J. Begrich, *Studien zu Deuterocesaja*, ThB 20, W. Zimmerli(ed.), (Munich: Kaiser, 1963), 14; Christopher R. Seitz, *The Book of Isaiah 40–66: New Interpreter’s Bible*, Leander E. Keck et al(eds.), (Nashvill: Abingdon Press, 2001), 393–395.

42) Claus Westermann, *Basic Forms of Prophetic Speec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09; Elias J. Bickerman, “The Edict of Cyrus in Ezra 1”, *JBL* 65 (1946): 271.

43) Moshe Reiss, *Jewish Bible Quarterly* 40 no 3 (July–Sept, 2012), 159–162; David G. Lyon, “The Cyrus Cylinder,” *JBL* 6 (June 1886), 139.

기름 받은 고레스: 특별한 사명으로 고레스가 기름부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이방인을 기름부었다는 것은 그가 성화되어 왕으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특별히 성취해야 할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고레스는 의식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비 이스라엘 왕인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브갓네살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으로 부르고 있다(렘 25:9; 27:6).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내 종”이라고 친근하게 많이 불렀던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고레스도 “나의 목자”로 불리어진다(사 44:28).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대리자로 불리어 졌다. 고레스 실린더에서 바벨론 만신전의 주신 마르дук이 지도자를 발견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을 살펴 고레스를 선택하고 그를 지도자로 선포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기름부음을 받아야 하지만, 고레스 실린더에서는 최고신에 의해 단지 지도자로 선포되었다. 고레스는 자신의 족보를 부친 캄비세스, 조부 고레스 1세, 그리고 증조부 테이스페스의 4대 후손으로 주장했다.

고레스의 오른 손을 잡고: 히브리 전통에서와 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왕들은 즉위식이나 매년 신년초의 아키투(Akitu) 축제에서 마르дук의 손을 잡았다. 고레스 실린더에서도 마르дук이 “그의 손을 잡았다.” 여호와가 고레스의 오른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지탱해 주어 그가 실패하거나 어떤 이도 그를 패배시킬

44) 기름부음은 왕, 제사장 및 선지사의 직분 임명과 관련되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삼하 3:18; 7:8; 왕상 11:13,32; 14:8; 19:16; 왕하 20:6; 대상 17:4,7; 시 89:3,20; 사 37:35; 렘 33:21-22; 33:26; 겔 34:23-24; 37:25). 히브리어 어근(*mslt*)은 기름으로 바르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구분되고 선택되었다는 뜻이다. 높은 지위에 대한 임명과 헌신을 뜻 하는데 전통적으로 왕위 및 구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한다. R. Laird Harris et al,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NY: Thomas Nelson Publishers, 1980), 530-531; Edward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III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 Co., 1972), 195.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웨스터만은 왕위 직위(royal office)에 대한 신적 확증이며 영예로운 직함이라고 제안한다.⁴⁵⁾ 고레스 신탁은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지도자로 선택한 것을 강조하며 바벨론의 익숙한 제의 관념과 유사한 모티브를 언급하고 있다. 야훼 하나님과 마르дук이 고레스의 오른 손을 잡고 도시와 국가들을 정복하고 승리를 얻도록 하겠다는 보장은 전술적으로 선무공작/ 선전공작(propaganda campaign)에 속한다.⁴⁶⁾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는 기원전 558년 경 메대의 지배하에 있던 안산(Anshan)에서 페르시아 왕위에 등극했다. 그는 지중해 해안 국가들과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동방을 해방시키고자 했다. 이에 리디아의 크뤼수스, 신바빌로니아의 나보니두스, 이집트의 아마시스 2세(Amasis II)가 스파르타(Sparta)와 함께 연합전선으로 저항하고자했지만 허사였다.⁴⁷⁾ 그는 기원전 550년 메대의 아스티아게스(Astyages) 왕을 폐위시키고 수도 엑타바나(Ectabana)를 점령하고 파사르가데(Pasargadae)에서 자신을 메대와 바사(페르시아)의 왕으로 선언했다. 그는 엑타바나를 그의 거처들의 하나로 삼고, 메대인들을 지방 정부의 요직에 등용함으로 그의 왕국은 “메대와 바사(Medes and Persians)로 불리어졌다(단 5:28; 6:8,15; 예 10:2).⁴⁸⁾ 기원전 547년 리디아의 동부

45) Claus Westermann, *Isaiah 40-66* (London: SCM Press, 1969), 159.

46) George A. F. Knight, *Servant Theology: A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40-45*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 Co., 1984), 87; Carroll E. Simcox, “The Role of Cyrus in Deutero-Isaiah”, *JACS* 57 (1937): 158-9; T. Guyler Young, Jr., “Cyrus,” *ABD*, 1:1231-1232.

47) G. Buchanan Gray, “Defeat of Croesus”, in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J. B. Bury, S. A. Cook, & F. E. Adcock(ed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7), IV:9; Pierre Briant, *From Cyrus to Alexander: a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trans. Peter T. Daniel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2), 58.

48) 고레스는 메대의 외조부 아스티아게스의 사후 그의 아들 시악사레스 2세(Cyaxares II)를 즉위시켜 메대의 상징적 왕으로 세웠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종족도 같고(Aryan), 양 왕실이 결혼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페르시아 귀족들이 요직에 진출했지만, 메대의 유능한 사람들도 등용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성서 여러 곳에서 “메대와 바사”(예 10:2; 단 5:28; 6:8,12,15,20) 혹은 “바사와 메대”(예 1:3,14,18-19)라는 표현의 배경이 된다. Briant, *From Cyrus to Alexander*,

경계선이었던 할리스(Halys) 강을 건넌던 리디아의 왕 크외수스를 수도 사데로 후퇴시키고 사데를 점령했다.⁴⁹⁾ 이후 5년 동안 그는 그리스 도시들을 포함하여 아나톨리아(현 터키)에 있던 리디아 왕국과 동쪽 지역을 정복했다. 에게 해에서 이란 지역의 파르디아(Parthia), 아프가니스탄의 박트리아(Bactria) 및 인더스 강까지 다스리게 되었다. 바벨론연대기에 따르면 그의 군대는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바벨론을 정복했다.⁵⁰⁾ 고레스 실린더에서 “그(마르дук)는 구티움(Gutium)과 모든 움만-만다(Umman-manda, 메대)가 그(고레스)의 발 앞에 굴복하여 절하게 하였다..... 그가 그의 도성 바벨론을 향하여 진군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점령함으로써 그는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그리고 시리아-팔레스타인의 레반트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로서 남방 유다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 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왕들의 허리는 칼을 차게 된 허리띠를 말한다(삼하 20:8; 느 4:18).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풀어서 어떤 왕들도 고레스를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즉 무장해제 되고 무력한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고레스가 바벨론 성 정복 시 유프라테스 강의 수로를 돌려 강바닥을 통해 성내로 진군했다고 했다.⁵¹⁾ 당시 바벨론 성은 고대 사가들의 지적처럼 마치 다니엘 5장에 묘사된 벨사살 왕의 마지막 환락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32-33.

49) 나보니두스 연대기에는 고레스가 크외수스를 죽였다고 했지만(ii, 16-18), 헤로도토스는 고레스가 그를 선대했다고 했다. 이는 아마 후대의 전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50) 바벨론과 고레스의 관계에 대해 헤로도토스와 크세노폰은 양자 간의 적의가 있었다고 했다. 바벨론의 나보니두스가 고레스의 진군 앞에 각 곳의 신상들을 바벨론에 모아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한 것도 고레스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였다(Herodotus Hist. I,190; *Cyropaedia* VII,5,58).

51) Herodotus *Persian Wars* I,190-191. 크세노폰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 *Cyropaedia* VII,5,1-36.

또한 기원전 547년 고레스가 리디아의 수도인 사테를 함락했을 때, 크세수스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믿고 방심했던 중 사테 성의 초병이 보초 중 그의 헬멧을 떨어뜨려 그것을 주우려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통로가 고레스 군에게 발각되어 그 장소를 따라 성채로 진입했다.⁵²⁾ 고대근동에서 공격의 첫 장애물이었던 도시 성 문을 열어서 그가 진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려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마치 왕들의 허리가 풀리고, 고레스 앞에 성 문이 열려 있는 듯한 모습의 사레들이다. 나보니두스 실린더에서도 고브리아스(Gobryas/Ugbaru/Gubaru)⁵³⁾ 장군의 지휘 하에 바벨론이 정복되고, 고레스 자신은 17일 후인 10월 29일에 입성했다.⁵⁴⁾ 그는 “싸움이나 전투 없이” 바벨론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개성 입성

52) Herodotus *Hist.* 1,78-93; Harold Lamb, *Cyrus the Great* (Garden City, NY: Doubleday & Co, Inc., 1960), 125-126.

53) 크세노폰은 나이 많은 바벨론의 장군인 고브리아스가 고레스의 진군 앞에 고레스 편으로 돌아서서 바벨론 정복을 지휘했다고 했다(*Cyropaedia* IV,6,1-11; *ANET*, 306; cf. 단 5:30). 그는 바벨론의 초대 봉신왕으로 임명되었지만 바벨론 함락 직후(539년 11월 6일), 혹은 셰이(William Shea)에 의하면 대략 1년 이내(538년 10월 27)에 그의 부인과 함께 독살되었다(*ANET*, 306). 성경의 “매대 사람 다리오(Darius the Mede)”로 불리어 진다(단 5:31; 6:1-2). W. Shea, “Un Recognized Vassal King of Babylon in the Early Achaemenid Period”, *AUSS* IX/1 (January 1971), 51-67; idem, “Nabonidus Chronicle: New Readings and the Identity of Darius the Mede,” 1-20.

54) 고레스 실린더의 바벨론 입성 기사와는 달리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인들이 고레스의 진군을 막기 위해 출전했지만 패해서 도성으로 후퇴했다. 지루한 포위 후 고레스가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돌려 그의 군대가 성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했다. 반면 크세노폰은 고레스가 성을 포위했지만, 성안에서의 공성회 때문에 군대를 철수시켰다. 성은 공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그는 성안으로 들어가는 강물을 돌렸다. 그는 많은 야자수 mangrove를 지어 성을 감시했다. 바벨론인들은 성이 20년 이상의 포위를 견딜 수 있다고 여겨 그러한 작전을 조종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인들이 음주와 여흥으로 밤을 새우는 축제일을 기다려 강물을 낮추고 고브리아스 장군을 입성시켜 불경한 왕을 살해했다. 바벨론인들은 고레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성채를 함락했다. 이런 면에서 고레스는 바벨론 진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안티오커스 1세(Antiochus I Soter, c. 281-261 BC) 때의 바벨론의 마르둑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베로수스(Berosus)는 나보니두스가 무력으로 고레스를 만났지만 패하고 보르시파로 피했다. 도시가 함락되자 나보니두스는 항복했고, 여생을 보낸 카르마니아(Karmania)로 유배되었다고 했다. Herodotus *Hist.* 1,190-191; *Cyropaedia* VII,5,1-36; Raymond Philip Dougherty, *Nabonidus and Belshazzar; a Study of the Closing Events of the Neo-Babylonian Empi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ondon, H.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9), 179-180; W. Shea, “Un Recognized Vassal King of Babylon in the Early Achaemenid Period”, 51-67.

했다.⁵⁵⁾

사 45:2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빛장을 꺾고: 여호와께서 고레스 앞에 가서 장애물과 어려움을 제거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바벨론 정복에 대해 마르독이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향하여 길을 출발하게 하였고, 마치 참된 친구처럼 그의 곁에서 동행했다”고 했다.⁵⁶⁾ 에살핫돈의 신탁문서에도 신적 동행의 약속이 주어졌다.⁵⁷⁾ 고대근동에서는 도시는 수호신인 주신의 거처이며, 왕은 그 신의 인간 대리자로 신들이 왕들의 활동에 관련되어 있었다. 여호와와 마르독이 모두 고레스의 통치에 관련되어 있다. 늦문과 쇠빛장은 고레스의 진군에 심각한 장애물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역사하기 때문에 성문이 아무리 크고 정복하기에 험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⁵⁸⁾

55) 고레스 신탁의 약속처럼 고레스의 원정에는 군사적 힘이나 전술뿐만 아니라 여러 도움이 있었다. 페르시아 모든 지파가 그를 지원했고, 메대를 정복할 때는 메대의 하르파구스 장군이 그를 열렬히 도왔고 또한 바벨론이 지원했다. 바벨론을 진격할 때는 바벨론의 장군 고브리야스가 그를 도왔다. 또한 정복된 지역과 백성들에 대한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 그에 대해 호의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물론 정복 과정에는 나보니두스 연대기(Nabonidus Chronicle iii)에서처럼, 바벨론 진격 전의 티그리스 강변의 오피스(Opis)에서 살육이 있었다. John D. W. Watts, *Isaiah 34-66*, WBC, David A. Hubbard(ed.),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7), 156-157;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8), 200-201; ANET, 306.

56) Robert Collins, *The Medes and Persians* (NY: McGraw-Hill Book Co., 1975), 42.

57) “아르벨라(Arbela)의 나 이쉬타르가 너의 앞과 뒤를 동행하겠다..... 두려워 말라, 에살핫돈 이어! 나 벨 신이 너에게 말하노라..... 신(Sin) 신이 너의 오른쪽에, 샨마시 신이 너의 왼편에 계신다. 위대한 60신들이 너를 둘러서 전투를 위해 정렬해 있다.” ANET, 449-450; Kuhrt, “Cyrus Cylinder and Achaemenid Imperial Policy”, 88-89.

58) 바벨론 성은 콜더웨이(Robert Koldewey) 등의 발굴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브갓네살 당시의 모습 일부가 드러났다. 현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쪽 90여Km에 있는 고대 바벨론 유적지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 신시가지와 내성으로 구성된 약 850 헥타르(258만평) 면적이고 성벽 전체의 길이가 약 20Km가 되는데, 내부와 외부 이중 성벽(inner wall & outer wall)로 둘러 있었다. 그 사이에는 유프라테스 강물로 채운 운하로 되어 있었다. 헤로도토스는 외부 성벽의 크기가 36피트(약 11m) 넓이로 4마리 말이 끄는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가는 넓이의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다고 했다. 이런 류의 성의 묘사는 상상에 근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Herodotus *Hist.* 1,33; Joan Oates, *Babylon*, revised ed. (NY: Thames and Hudson, 1988), 144-149; Piotr Bienkowski and Alan Millard, *Dictionary of the Ancient Near East* (Philadelphia: Univ. of Philadelphia Press, 2000), 42-44; Gwendolyn Leick, *Historical Dictionary of*

사 45: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보화와 재물은 고대 시대 은밀한 굴이나, 신전, 구덩이나 흙 속에 묻었다. 고레스가 취했던 대표적 재물은 리디아의 수도 사테, 메대의 수도 액타바나, 그리고 바벨론의 보물들이다(렘 50:37; 51:13; 합 2:6-8; Nabonidus Chronicle ii 1-4; Cyropaedia V.2.8).*⁵⁹⁾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렸듯이, 고레스 실린더에서도 마르дук이 그를 지명하여 왕으로 세웠다. 고레스 신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와 그분의 은혜를 알리기 위해 고레스를 불렀다고 했다. 이 사상은 이스라엘, 고레스 그리고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사 45:3-4,6). 그러나 고레스 실린더에는 마르дук 신에 대한 이러한 동기는 없다.

사 45:4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찌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왕정신학의 일종으로 수메르와 아카드의 많은 왕들이 자신들은 신들의 소명을 받고, 왕권을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정의와 복리를 실천했다고 선언한 것과

Mesopotamia (Lanhan: The Scarecrow Press, Inc., 2010), 29-30; Wouter F. M. Henkelman, Amélie Kuhrt, Robert Rollinger, Josef Wiesehofer, "Herodotus and Babylon Reconsidered," in *Herodot und das Persische Weltreich* (Herodotus and the Persian Empire), Robert Rollinger, Brigitte Truschneegg, Reinhold Bichle(eds.), (Wiesbaden: Harrassowitz, 2011), 449-470.

59) 크세노폰은 고브리야스 장군이 고레스에게 바벨론의 거대한 부를 이야기하고, 크회수스에게는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사테를 장악했음을 보고했다고 기록했다(*Cyropaedia* V.2.8,11); R. N. Whybray, *Isaiah 40-66: New Century Bibl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81), 105-106; James Muilenburg & Henry Sloane Coffi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The Interpreter's Bible*, George A. Buttrick et al(ed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5:523.

유사하다.⁶⁰⁾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의 소명을 받은 종이라는 것이다. 고레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할 지라도 칭호를 주었고, 여호와는 그를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 그분의 목자(shepherd)로 불렀다(사 44:28). 그러나 고레스 실린더에서는 고레스가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마르둑을 “신들 중의 왕”으로 부른다.⁶¹⁾ 이리함에도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과 같은 야훼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렘 1:5; cf. 사 44:2,24; 46:3; 49:5).⁶²⁾

고레스는 타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폈다. 신바빌로니아의 왕들이 전쟁으로 노획하였거나 특히 나보니두스가 수도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신상들을 원래의 제의 장소로 회복시키고, 강제 이주시켰거나 노예로 만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었다. 고레스 실린더에서 “그(고레스)는 그(마르둑)가 정복하게 한, 머리가 검은 사람들을 언제나 법과 정의로 돌보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들의 성소가 버려졌던 티그리스 강 저편의 성소들로 (신상[神像])을 돌려보냈고, 나는 그들이 영원한 처소에 거하도록 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거민들을 모았고 그들의 거처를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더 나아가 위대한 주 마르둑의 명령으로 나는 나보니두스가 신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바벨론으로 옮겨온 수메르와 아카드의 신들을 그들의 거주지에 기뻐하는 거처에 모셨다.” 이것은 종교와 거주 이전의 자유

60)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와 아카드 법들의 전문에서 왕들은 신들에 의해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왕으로 선택되고 왕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히타이트 법에서는 이런 모티브들이 전혀 없이 법의 재해석을 통해 법의 도덕성을 신장시킨 면모를 보여준다. 이종근, “함무라비 법의 종교성”, 『구약논단』 16권 4호(2010, 12), 161-162; 이종근, “히타이트 법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신학논총』 67 (2010, 1, 15), 27-52;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8), 55-56, 73, 106-107.

61) Elias J. Bickerman, “The Edict of Cyrus in Ezra I”, *JBL* 65 (1946), 256-7; M-J. Seux, “Cyrus Serviteur de Marduk?” *Revue Biblique* 76 (1969): 228-9.

62) F. Delitzsch, *Isaia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eds. C. F. Keil and F. Delitzsch, trans. James Marti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78), 220.

를 신장한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⁶³⁾

쿠르트(Amélie Kuhrt)는 고레스 실린더가 바벨론 중심(Babylo-centricity)의 문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귀환이나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한다.⁶⁴⁾ 그러나 고레스 실린더에는 유대나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지중해(윗바다)에서 페르시아만(아랫바다)까지,” 시리아와 가나안을 포함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서쪽 나라(*mati A-mur-ri-i*)”⁶⁵⁾와 “티그리스 강 저편”까지 등은 고대근동 전체를 언급하는 말이고, 여기에는 유대인의 해방, 귀환,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의 재건도 분명히 포함된다.

마르둑 사제들에 의해 기록된 고레스 실린더는 고레스가 마르둑 신앙을 고백하지만, 역대기 기자(Chronicler)는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이다”(대하 36:23; cf. 스 1:1-3)고 했다.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놓은 성전 기구를 돌려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명했다(스 1:4-11; 6:2-3). 이런 모습에 대해 고레스 신탁은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사 44:28)로 선포한다.

사 45: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

63) Hiram Abtahi, “Reflections on the Ambiguous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yrus the Great’s Proclamation as a Challenge to the Athenian Democracy’s Perceived Monopoly on Human Rights,”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36 no. 1 (Winter, 2007), 55–92.

64) Kuhrt, “Cyrus Cylinder and Achaemenid Imperial Policy,” 91; cf. Bob Becking, “We All Returned as One!”: Critical Notes on the Myth of the Mass Return” in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Persian Period*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6), 8.

65) Cogan, “Cyrus Cylinder”, 2:315–316; George E. Mendenhall, “Amorites” *ABD*, 1:199.

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찌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것은 유일신(monothelism) 사상의 글이다. 고레스 신탁에서는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고레스 실린더는 마르둑과 그의 다른 이름인 벨과 그의 아들인 느보(사 46:1), 그리고 “모든 신들” 등을 언급하고 고백하는 수준의 다신교적이다. 고레스 신탁은 세상을 지배하던 고레스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긴다는 보편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⁶⁶⁾ 유일신 여호와가 열왕의 허리를 푸는 것과는 반대로 여기서는 고레스의 띠를 동일 것이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개인적으로 강하게 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권세로 승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사 45: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3절에서는 여호와가 고레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했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를 불렀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한다고 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는 온 세계를 의미한다. 고레스 실린더에서는 마르둑이 고레스를 온 세상을 통해서 불렀고, 고레스도 자신을 지중해서 페르시아만까지 세계의 왕, 사방의 왕이라고 했다. 고레스 신탁의 5절에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나 밖에 신이 없”다는 선언은 여기서 다시 강조되어 “다른 이가 없”다는 것으로 끝맺는다.

사 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66) Chang Joo Kim, “Four Prestigious Titles on Cyrus: From Henotheism to Monotheism,”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81 (2012), 13–14.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 배화교[拜火教]의 이원론인 빛의 신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Ormazd)⁶⁷⁾와 악의 신 아흐리만(Ahriman)의 개념이 서로 반대되게 작용하지만, 여호와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절대주권적 통치에서 본질적이고 내재적 이원론을 극복한다. 어둠과 악이 재난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분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수단이 되어 그분의 종국적 구원과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고레스가 추구했던 페르시아의 이원론 사상을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강조한다.⁶⁸⁾

4.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의 정의

법과 정의(*mišpāt ṣadāqāh*)는 성서에서 많이 강조되는데(암 5: 24), 중언법/이사이어(hendiadys)로 공평과 정의, 공의 또는 정의로 요약되고 사회정의로도 불리어질 수 있다. 정의(正義)/ 의(義)는 자비/ 인자와 함께 마치 쌍둥이 자매(twin sisters)처럼 나타난다(시 85: 10; 89: 14; 97: 2; 미 6:8). 법/ 공법(*mišpāt*)은 규범(norm)을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정의(*sedeqah*)는 공정하고 의로운 사회개혁 조치들로 모든 법적 및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관계에서 바르며 약자를 돕

67) 고레스의 후예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Xerxes, 486-465 BC)는 “아후라마즈다는 위대한 신으로 이 땅과 저 하늘과 인류를 주셨고 그의 예배자들에게 번영을 주고..... 아후라마즈다의 그림자 밑에서 나는 왕이다, 나는 그 위에서 다스린다.” 등으로 배화교 사상을 나타냈다. ANET, 316-317.

68)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8), 200-201; John D. W. Watts, *Isaiah 34-66*, WBC, David A. Hubbard et al(eds.),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7), 157; George A. F. Knight, *Isaiah 40-55* (London: SCM Press, 1956), 88-90; idem, *Servant Theology: A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40-45*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 Co., 1984), 87; W. P. Davies & Louis Finkelstein, *Cambridge History of Judaism*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4), 282-8.

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의는 모든 법과 제도의 목적이며 신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우주와 이 세상 섭리의 기초이다(시 89:14; 97:2; cf. 사 9:7).⁶⁹⁾

성서는 “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라고 권고한다(암 5:24). 물이 항상 공평하고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특성이 있다. 정의는 마치 한자의 법(法)자에서 물이 흘러가듯 원칙, 판단력, 상식과 순리를 따르고 악을 제거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돕는 것이다.⁷⁰⁾ 이것은 고대 시대 자유, 해방, 및 회복 등의 구현이었다.⁷¹⁾ 출애굽은 만고불변의 정의의 실현이며, 법과 정의의 대현장과도 같다.⁷²⁾ 이스라엘의 종교와 모든 제도들에는 이 정의의 모티브가 내재되어 있다.

고레스 신탁에서 고레스는 여호와와 기름부은 종으로 그의 출현은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시온에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사 40:9)이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위해 그가 열국을 정복하게 하고 북방과 해 돋는 곳 동방에서 불러 바벨론과 이스라엘에 관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겠다고 했고 했다(사 41:2-3, 25; 42:6; 45:13; 46:11).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도움과 승리의 약속을 선언되었다(사 41:1; 44:28; 45:1;

69) 이종근, “수메르 우루-이남기나 법과 히브리법의 사회정의 고찰,” 「구약논단」 14권 2호 (2008, 6. 30), 152-153; NIDOT, 2:1142-1144; 3:744-768; TDOT, IX:86-97; XII:239-264; TWOT, 2:752-755, 946-949; Moshe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Minneapolis: Fortress Press/ Jerusalem: Magnes Press, 1995), 5.

70) 두산동아사서편집국, 「동아백년옥편」 (서울: 두산동아, 2000), 1050.

71) 법과 정의는 오늘날 공정성, 민주성, 복지성,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성을 수반한다. 이종근, 「히브리 사상」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7), 372-378; Westbrook,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149-163;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45-46; idem, “Freedom Proclamations in Egyp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in *Pharaonic Egypt: The Bible and Christianity*, S. Israelite-Groll(ed.), (Jerusalem: Magnes Press, 1985), 317; Louis Jacobs, “Righteousness”, *EJ*, 14:179-183; J. J. Scullion, “Righteousness”, *ABD*, 5:724-736.

72) Moshe Weinfeld,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Israel and the Nations: Equality a Freedom in Ancient Israel in Light of Social Justice in Ancient Near East* (Jerusalem: Magnes Press, 1985); idem, “Justice and Righteousness תפלה וצדקה תורה תורה 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H. G. Reventlow/Y. Hoffman (eds.),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Sheffield: JSOT Press, 1992), 228-246.

48:15).

고레스는 여호와와 종처럼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사 42:3-4, 개역개정)는 정의의 왕으로 세워졌다(사 45:13). 법과 정의의 근원인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이루며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도시들이 중건되며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리라 했다(사 44:28). 그를 일으켜 이러한 구원을 베풀 분은 오직 여호와 자신뿐이며 다른 신이 없다고 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던 남방 유다 백성들, 마치 지령이(사 41:14) 같이 속절없이 절망적인 노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⁷³⁾ 자유와 해방, 본국 귀환과 국가 건설의 새출발의 꿈을 실현시킬 의의 중이다.

고레스 실린더에서도 마르дук이 바벨론으로 신상이 옮겨진 수메르와 아카드의 황폐된 여러 도시들과 억압받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지원할 의로운 지도자로 고레스를 세웠다(line 9-19). 고레스는 백성들을 법과 정의로 다스렸다(line 9-19). 그는 법치를 통해 위협이나, 세금 및 부역 등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다(*kidinnutu*). 니스웨 등 여러 도시들에서 탈취했던 신상들을 돌려보내 기뻐하는 거처로 모셨고, 신전의 제의와 제물을 지원하며 모든 신들이 고레스와 그의 아들 캄비세스를 위해 기도하게 했다(line 28-36, 37-44).

그는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 특히 종교자유를 신장했다. 미샤람의 여러 조치들 중 고레스 실린더의 이런 것들은 신바빌로니아 제국 말기 나보니더스에 의한 월신(月神) 신(Sin)을 최고신으로 추구했던 정책에서 고레스가 마르дук의 위상을 다시 만신전의 주신으로 회복하는 종교개혁

73)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포로로 인해 원통과 한을 가지고 있고(사 40:27; 49:1,14-16), 압제자들로 인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떨었다(사 41:10-12). 그들은 상한 갈대와 같이 쇠하고 낙담하며(사 42:3-4), 물과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 듯한 고난의 삶(사 43:2), 억압과 학대에 시달리던 비참한 처지였다(사 43:6; 49:26). 이런 상황에서 희망은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줄 의의 중이었다.

정책을 펴고 세계를 평정한 대 격변의 시대에 취한 방책들이다. 나보니두스는 전통적인 바벨론 만신전의 주신인 마르둑을 우르와 하란의 주신인 달(月)의 신인 신(Sin)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한 마르둑 제사장 그룹의 반발과 분열이 신바빌로니아 제국 패망의 단초가 되었다. 고레스는 나보니두스의 정책과는 달리 마르둑을 바벨론의 주신으로 지위를 회복했다.⁷⁴⁾

나보니두스가 신바빌로니아제국 내 여러 도시들과 신전들의 신상들을 바벨론으로 모아 고레스의 바벨론 성 진군 앞에 자신과 제국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신들을 원래의 신전과 제의 장소로 돌려보내고 억눌렸던 자들을 해방시킴으로 당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고레스보다 1200여 년 전 함무라비나 다른 왕들이 미샤람의 전승에 따라 “내가 나라에 진리와 정의를 세웠다(*kittam u mišaram ina pr mātim ašikum*)”(함무라비 법 전문 v 14-24)고 주장했던 것처럼 고레스도 자신을 법과 정의의 왕으로 선언했다.

고레스는 정의의 실현으로 고대근동에서 인권과 복리를 추구했다. 그는 양 문서에서 신들과 백성들의 기쁨의 대상이었다.⁷⁵⁾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는 고대근동에서 고난받은 인간들의 자유와 해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의의 금자탑이다. 양 문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선포하고 있다.

74) 이종근,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월신 종교의 종교정책,” 335-340; Martin Leuenberger, “Kyros-Orakel und Kyros-Zylinder Ein religionsgeschichtlicher Vergleich ihrer Gottes-Konzeptionen”, *Vetus Testamentum* 59 (2009), 244-256; Ralph W. Doermann, “Cyrus, Conqueror of Babylon: Anointed (by the Lord) or Appointed (by Marduk): Reexamination of Conflicting Perspectives,” *Proceedings, Eastern Great Lakes and Midwest Biblical Societies* 7 (1987), 1-16; Millard C. Lind, “Monotheism, Power, and Justice: A Study in Isaiah 40-55”, *CBQ* 46 (1984): 433-6.

75) 고레스로 인한 “기쁨”은 고레스 신탁 관련 부분에서 4회(사 42:21; 44:28; 51:11; 55:12), 고레스 실린더에도 기쁨과 행복이 4회(lines 9-19, 22b-28) 강조된다.

5. 결론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는 모두 고대근동 세계에서 자유와 해방의 이정표이다. 고레스 신탁은 기원전 8세기 문서로 고대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배에서 유대인의 해방과 귀환, 성전과 도시 재건 모티브의 기초가 되었다. 고레스 실린더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한 뒤 메데, 리디아, 에게 해 도시들 및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고 기원전 539년 10월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함락 한 뒤 마르дук 제사장 그룹에 의해 기록된 문서이다. 수천년 전래의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롬의 전승을 따르는 신전건축 비문의 왕위선전 문서이다.

고레스 신탁은 양 문서는 유대 민족의 해방과 귀환, 성전과 도시 재건 등의 배경에서 유사하다. 고레스 신탁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며, 고레스는 여호와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의의 종이다. 고레스 실린더에서도 고레스는 마르дук의 선택과 도움으로 바벨론에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정의의 왕이다. 바벨론 정복 후 나보니두스가 신바빌로니아제국 내 여러 도시들과 신전들의 신상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것을 원래의 신전과 제의 장소로 돌려보내고 억눌렸던 자들을 해방시켰다. 고레스는 정의의 실현으로 고대근동에서 인권과 복리를 추구했다.

고레스는 양 문서에서 신들과 백성들의 기쁨의 대상이었다. 양 문서의 정의는 모든 시대에 걸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선포하고 있다. 양 문서는 고대근동에서 고난받은 인간들의 자유와 해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의의 금자탑으로 인류의 인권신장을 위한 귀중한 자료이다.

6. 참고문헌

- 남대극, 「소리지르는 돌들: 고고학이 밝혀주는 성경의 사실」. (삼육대학교출판부, 2008).
- 박종수, “고레스 찬가(이사야 44:24-55:8).” 『구약논단』 (1996. 12), 80.
- 이동규, “나보니두스의 정치, 종교적 기행(奇行)과 그 배경,” 『서양고대사연구』 23 (2008. 12. 30), 13-29
-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 개정판.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8).
- _____, “수메르 우루-이눔기나 법과 히브리 법의 사회정의의 고찰.” 『구약논단』 14권 2호(2008. 6. 30), 152-153.
- _____, “히타이트 법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신학논총』 67 (2010. 1. 15), 27-52.
- _____, “함무라비 법의 종교성,” 『구약논단』 16권 4호(2010. 12), 161-162.
- _____,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월신 종교의 종교정책,” 『종교연구』 62 (2011. 3), 335-340.
- _____,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11).
- 헤드릭, 래리, 「키루스 대제의 역전의 병법」(Xenophon's Cyrus the Great) (박영수 옮김). 서울: 대성닷컴, 2009.
- Abbott, Jacob, *Cyrus the Great - Makers of History* (NY: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04).
- Abtahi, Hirad, “Reflections on the Ambiguous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yrus the Great's Proclamation as a Challenge to the Athenian Democracy's Perceived Monopoly on Human Rights,”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36 no. 1

- (Wint, 2007), 55-92.
- Beaulieu, Paul-Alain, “King Nabonidus and the Neo-Babylonian Empire”.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J. M. Sasson et al(eds.),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973-974,977-979.
- _____, “World Hegemony. 900-300 BCE”. *Companion to the Ancient Near East*. ed. Daniel C. Snell: Blackwell Companions to the Ancient World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988), 56.
- _____, *The Reign of Nabonidus, King of Babylon 556-539 B.C.* Yale Univ. Press, 1989.
- Bickerman, Elias J., “The Edict of Cyrus in Ezra 1”. *JBL* 65 (1946): 271.
- Bienkowski, Piotr and Alan Millard, *Dictionary of the Ancient Near East* (Philadelphia: Univ. of Philadelphia Press, 2000), 42-44.
- Brandon, S. G., “Propaganda Factor in some Ancient Near Eastern Cosmogonies.” F. Bruce(ed.), *Promise and Fulfillment; Essays Presented to S. H. Hooke in Celebration of his 90th Birthday* (Edinburgh: T & T Clark, 1963), 20-35.
- Briant, Pierre, *From Cyrus to Alexander: A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trans. Peter T. Daniel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2), 32-33.
- Chavalas, M. W. and K. L. Younger, Jr.(ed.), *Mesopotamia and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Clines, D. J. A., “Cyrus”. *ISBE*, I:846.
- Cogan, Mordechai, “Cyrus Cylinder (2. 124)”. In *the Context of Scripture: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e*. William W. Hallo, & K. Lawson Younger(eds.), (Leiden: Brill, 2000), II:314-316.

- Crompton, Samuel W., *Cyrus the Great: Ancient World Leader* (NY: Infobase Pub., 2008).
- Dougherty, Philip, *Nabonidus and Belshazzar; a Study of the Closing Events of the Neo-Babylonian Empi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ondon, H.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9).
- Elias J. Bickerman, "The Edict of Cyrus in Ezra I". *JBL* (65), 1946, p 256-7.
- Gressmann, H., "Die literarische Analyse des Deuterocanonicus". *ZAW* 34 (1914): 254-297.
- Harmatta, J., "The Literary Pattern of the Babylonian Edict of Cyrus." *Acta Antiqu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19 (1971), 217-231.
- Henkelman, Wouter F. M., Amélie Kuhrt, Robert Rollinger, Josef Wiesehofer, "Herodotus and Babylon Reconsidered," in *Herodot und das Persische Weltreich* (Herodotus and the Persian Empire, Robert Rollinger, Brigitte Truschneegg, Reinhold Bichle(eds,)), (Wiesbaden: Harrassowitz, 2011), 449-470.
- Herodotus, *Histories*.
 _____, *Persian Wars*.
- Høgenhaven, J., "Prophecy and Propaganda: Aspects of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ing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JSOT* 1 (1989), 125-141.
- Kim, Chang Joo, "Four Prestigious Titles on Cyrus: From Henotheism to Monotheism,"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81 (2012), 13-14.

- Knicht, George A. F., *Isaiah 40-55* (London: SCM Press, 1956).
- Kuhrt, Amélie, “Ancient Near Eastern History: The Case of Cyrus the Great of Persia”.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143 (Oxford Univ. Press, 2007), 112-113.
- _____, *The Ancient Near East: c.3000-330 BC* (London/ NY: Routledge, 1995).
- _____, “Cyrus the Great of Persia: Images and Realities”, *Representations of Political Power: Case Histories from Times of Change and Dissolving Order in the Ancient Near East*. Marlies Heinz and Marian H. Feldman(ed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7), 174-175.
- _____, “The Cyrus Cylinder and Achaemenid Imperial Policy”, *JSOT* 25(1983): 85-7.
- Lamb, Harold, *Cyrus the Great* (NY: Doubleday & Co. Inc., 1960).
- Leuenberger, Martin, “Kyros-Orakel und Kyros-Zylinder Ein religionsgeschichtlicher Vergleich ihrer Gottes-Konzeptionen,” *Vetus Testamentum* 59 (2009), 244-256.
- Liverani, M., “The Deeds of Ancient Mesopotamian Kings.” In J. M. Sasson et al(eds.),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2354-2359.
- Matthews, Victor H. & Don C. Benjamin, *Old Testament Parallels: Laws and Stories from the Ancient Near East* (NY/ Mahwah, NJ: Paulist Press, 1991).
- Mendenhall, George E., “Amorites,” *ABD*, 1:199.
- Michalowski, Piotr, “Archaemenid Period Historical Texts Concerning Mesopotamia: The Cyrus Cylinder,” in *The Ancient Near East: Historical Sources in Translation* (Malden, MA; Oxford : Blackwell

- Pub., 2006), 427
- Nardoni, E., *Rise Up, O Judge: a Study of Justice in the Biblical World*.
Trans. S. Ch. Martin (Peabody, MA: Hendrickson, 2004).
-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I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8).
- Rogers, Robert W., *Cuneiform Parallels to the Old Testament* (NY: Eaton & Mains/Cincinnati: Jennings & Graham, 1912).
- Saggs, H. W. F., *The Might That was Assyria* (London: Sidgwick & Jackson, 1984).
- Shea, W., “Un Unrecognized Vassal King of Babylon in the Early Achaemenid Period”, *AUSS* IX/1 (January 1971), 51-67.
- Simcox, Carroll E., “The Role of Cyrus in Deutero-Isaiah”, *JAOS* 57 (1937): 158-9.
- Walton, John H.,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Introducing the Conceptual World of the Hebrew Bibl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 Weinfeld, Moshe,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 Magnes, 1995).
- _____,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Israel and the Nations: Equality a Freedom in Ancient Israel in Light of Social Justice in Ancient Near East* (Jerusalem: Magnes Press, 1985).
- Westermann, Claus, *Isaiah 40-66* (London: SCM Press, 1969).
- Xenophon *Cyropaedia: The Education of Cyrus*, Trans. & annotated.
Wayne Ambl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2001).
- Young, T. Guyler Jr., “Cyrus”, *ABD*, I:1231-1232.
http://en.wikipedia.org/wiki/Cyrus_Cylinder

검색어

고레스

고레스 신탁

고레스 실린더

메대바사

여호와

마르дук

The Cyrus Oracle and the Cyrus Cylinder

Jong-Keun Lee,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Cyrus Oracle and the Cyrus Cylinder with the help of the literary comparative method. The Cyrus Oracle was the cornerstone for liberty, emancipation, the return of the ancient Israel from Babylon captivity and for rebuilding of the temple. King Cyrus is the Yahweh's anointed servant fulfilling his will for the Israelites.

The Cyrus Cylinder is a text written in the stone of the Temple foundation, kind of royal propaganda, in the pattern of *misharum* edicts in the land of Mesopotamia. It enhances religious freedom and abolishment of slavery, by allowing the subjugated subjects to return to their lands and to worship their own gods.

Both the Cyrus Oracle and the Cyrus Cylinder are similar in their

www.kci.go.kr

background for human liberty and emancipation, and are also the invaluable sources for suffering humanity.

Key words

Cyrus

Cyrus Cylinder

Cyrus Oracle

Jehovah

Marduk

Medes and Persians

- 투고일: 2013년 4월 01일
- 심사일: 2013년 5월 04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15일

www.kci.go.kr